병오년 '붉은 말' 기세로…지역 경제계, 새해 벽두 다시 뛴다

경총·광주은행·지역농협 등
오늘 시무식 통해 새 출발
기아·삼성, 5일부터 재가동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는 광주지역 경제계의 각오가 남다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내수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지역 경제 주체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 경제계는 이번 주 주요 경제단체의 신년인사회와 기업별 시무식을 기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와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26년 노사민정 통합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광주·전남 지역 10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해 새해 인사와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다.

매년 지역의 20여개의 협회 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2026년에는 광주경총과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각 기관의 예산 절감과 경제계 화합의 의미를 부여했다. 2026년 합동 신년인사회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초 행사로 광주·전남 각 단체 회원사 및 기관장, 정치계 등 인사들이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2일 시무식을 갖고 올해도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는 지방은행으로 힘찬 출발을 알린다. 이날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은 올해 역동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오는 2일 시무식을 갖고 2026년 한 해 동안 현장 밀착형 사업추진과 농업·농촌 가치 환산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의미가 전남농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2026년에는 불과 말의 기운처럼 에너지와 추진력을 살려 농업·농촌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오토랜드 광주는 5일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시무식을 개최한다. 지난 한 해 미국 관세 여파 영향으로 수출 물량에 비해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올해 국내·외 주력 생산 차종인 셀토스·스포티지를 비롯해 봉고 등 인기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생산 물량이 예정돼 있어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5일부터 별도의 시무식 없이 올해도 최고 품질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생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경기 부진과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 환율 불안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함께 모아가자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상호 간의 신년 하례를 시작으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신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건배 제의와 덕담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된다.

한상원 회장은 "병오년 새해에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는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만·안태호 기자

2025년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5년만에 최저

광주 1.9% 상승…생활비 항목 오름세
전남 2.2%↑ 농수축산 가격 상승 주도

2025년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쌀과 보험료 등 필수 생활비를 중심으로 체감 물가 부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연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6%, 2022년 5.1%, 2023년 3.7%, 2024년 2.5%에 이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연간 2.0%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1.1% 올랐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2.0%, 공업제품이 1.7%, 서비스는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상품·서비스는 4.4%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보험서비스료가 16.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장례비도 3.5% 올랐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2.4% 상승, 귤(29.5%)과 커피(12.6%), 고등어(13.6%), 달걀(9.4%), 쌀(8.4%), 빵(4.9%), 돼지고기(2.5%), 비스킷(12.5%)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전남 지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확인됐다.

전남 역시 2021년 2.6%, 2022년 5.7%, 2023년 3.5%, 2024년 2.5%에 이어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연간 2.4%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0.5%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2.5%, 공업제품은 1.9%, 서비스는 2.4% 각각 상승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은 1.0% 상승했으며 이중 돼지고기(7.2%), 사과(18.4%), 쌀(13.4%)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교통 부문은 0.9% 상승했는데 경유가 11.9%, 휘발유가 6.0% 오르며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가 전년 동월 대비 2.2%, 전남은 2.5% 각각 상승했다. /안태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사진은 진료센터 내부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公, 국제농업협력 성과 인정받았다

'국제개발협력 유공'서 '대통령 표창'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최근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협력국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그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전문성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사는 '케이(K)-농업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맞춤 사업 기획·추진 ▲체계적인 거버넌스 운영 ▲지속적인 성과 실현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6개국에서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역개발 ▲농업용수 개발 ▲영농센터 지원 등 40여 개 사업을 수행했다. 이들 사업은 현지 농업 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센터 구축사업'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몽골 유일의 수의과대학인 '몽골생명과학대학교'는 임상 실습 공간과 전문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수의진료센터 신축부터 기자재 지원, 수의 교육, 정책컨설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해법을 제공했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력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케이(K)-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농협전남본부, 연말연시 우리 쌀로 온정 나눴다

1천510포 지역 소외계층 전달 예정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일 "전날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 허영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우리 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기탁한 일억원 상당의 고품질 전남 쌀 1천510포/20㎏는 농협재단의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지난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농협은행 전남본부가 1억원을 기부했으며 이 날 1억원 상당의 쌀을 추가로 기탁, 총 2억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전남본부는 지난해 도내 재난 및 재해 피해복구와 농업인 등을 위해 총 23억원 상당을 지원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오늘 준비한 농업인의 소중한 땀이 깃든 전남 쌀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농협은 2026년에도 따뜻한 나눔의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